

KLSI

ISSUE PAPER

제 129 호
2020-10호
(2020.05.18)

www.klsi.org

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

김유선 |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

한국노동사회연구소

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(골든브릿지빌딩) 3층

전화 02)393-1459

팩스 02)393-4449

www.facebook.com/ksli.org/

〈요 약〉

-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‘취업자 48만 명 감소, 21년 만에 최악’처럼 보도하고 있음.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48만 명이 아니라 102만 명임.
- 코로나 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(-102만 명) 폭은,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취업자 감소(-25만 명) 폭은 물론, 외환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(-92만 명) 폭을 넘어섰음.
- 코로나 위기 두 달 취업자는 102만 명 감소했는데, 대부분 구직활동을 포기함에 따라 실업자는 12만 명 증가했음.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무직자는 105만 명 증가했음.
-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, 고령자, 임시일용직,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,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. 이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- 일시휴직자는 2020년 3월 161만 명, 4월 149만 명으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. 4월에 줄어든 12만 명은 대부분 여성으로 일시휴직에서 무직(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)으로 전환했을 것으로 보임.
- 코로나 위기 두 달 동안 전체 취업자의 총노동시간은 주당 1억 1,195만 시간(-10.5%) 감소했음. 이를 주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28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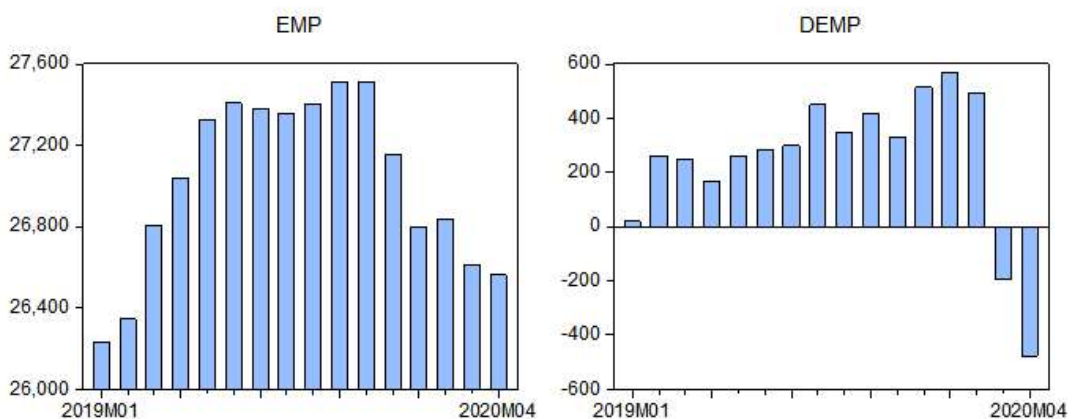
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

김유선 |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

1.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48만 명이 아닌 102만 명

- 통계청은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때 ‘전월(前月) 대비’보다 ‘전년 동월(前年同月) 대비’ 지표를 주로 사용함. 이는 계절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임.
- 예컨대 2020년 3월 취업자는 2,66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명 감소했고, 2020년 4월 취업자는 2,65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8만 명 감소했음(〈그림1〉 참조).
-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대다수 언론은 기사 제목으로 ‘취업자 48만 명 감소, 21년 만에 최악’ 식으로 보도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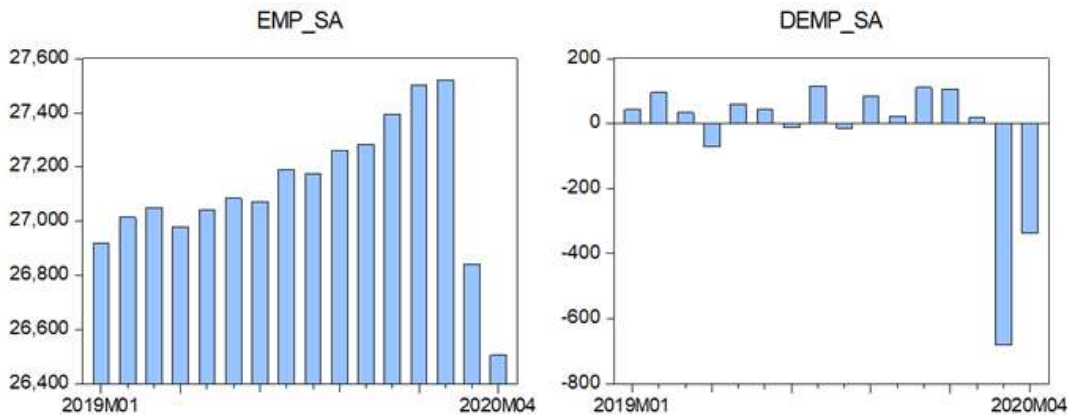
〈그림1〉 연도별 월별 취업자 수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
(2019.1-2020.4, 원계열, 단위: 천명)



- 고용지표는 계절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그밖에 경기변동, 불규칙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됨. 요즈음처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일 때는 ‘전년 동월 대비’보다 ‘전월 대비’ 또는 ‘2월 대비’ 자료가 적합함.

-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020년 2월 15일 28명, 3월 15일 8,162명, 4월 15일 1만 591명이고, 누적 사망자는 각각 0명, 75명, 225명임. 따라서 2월까지지는 코로나 전(前), 3월부터는 코로나 후(後)로 분류할 수 있음.
- 통계청은 계절 요인을 통제한 계절조정 자료도 제공하고 있음. 따라서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때는 ①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하면서 ② 2월 대비 3월, 4월 고용지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하는 게 타당함.
- 2020년 2월 계절조정 취업자는 2,752만 명, 3월 2,684만 명, 4월 2,650만 명임. 2월 대비 3월 취업자는 68만 명 감소했고, 3월 대비 4월 취업자는 34만 명 감소했으며, 코로나 전(前)인 2월 대비 4월 취업자는 102만 명 감소했음(<그림2>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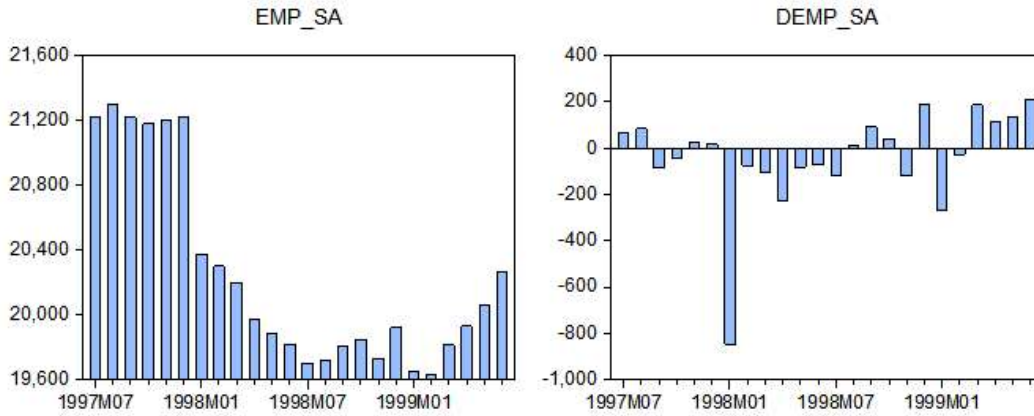
〈그림2〉 연도별 월별 취업자 수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
(2019.1-2020.4, 계절조정, 단위: 천명)



2. 코로나 위기 두 달 취업자 감소(-102만 명) 폭은,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동안 취업자 감소(-25만 명) 폭은 물론, 외환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(-92만 명) 폭을 넘어섰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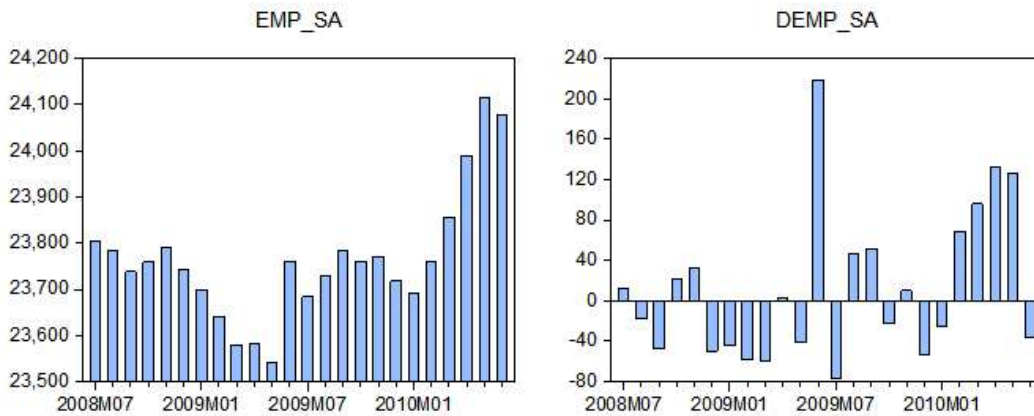
- 외환위기 때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1997년 12월 2,122만 명에서 1999년 2월 1,963만 명까지 14개월 동안 160만 명 감소했음.
- 취업자 수가 급감한 1998년 1월에는 2,038만 명으로 한 달 사이 85만 명 감소했고, 2월에는 2,030만 명으로 다시 8만 명 감소했음. 첫 두 달 동안 감소한 취업자 수는 92만 명임.

〈그림3〉 외환위기 때 취업자 수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
(1997.7-1999.6, 계절조정, 단위: 천명)



-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8년 11월 2,379만 명에서 2009년 5월 2,354만 명까지 6개월 동안 취업자가 25만 명 감소했음.

〈그림4〉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취업자 수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
(2008.7-2010.6, 계절조정, 단위: 천명)



- 코로나 위기 첫 두 달 동안 취업자 수 감소(-102만 명)는, 글로벌 금융위기 첫 두 달 취업자 수 감소(-9만 명)는 물론이고, 외환위기 첫 두 달 취업자 수 감소(-92만 명) 폭을 넘어서고 있음.
- 외환위기 때 14개월 동안 감소한 취업자가 160만 명이었음을 감안할 때, 앞으로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외환위기 때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.

〈표1〉 금융위기 때 취업자 감소와 비교(계절조정, 단위: 천명)

외환위기			글로벌 금융위기			코로나위기		
연월	취업자	전월증감	연월	취업자	전월증감	연월	취업자	전월증감
1997.07	21,219	69	2008.07	23,803	12	2019.01	26,919	43
1997.08	21,303	84	2008.08	23,785	-18	2019.02	27,015	96
1997.09	21,220	-83	2008.09	23,738	-47	2019.03	27,050	35
1997.10	21,180	-40	2008.10	23,759	21	2019.04	26,979	-71
1997.11	21,204	24	2008.11	23,792	33	2019.05	27,040	61
1997.12	21,221	17	2008.12	23,742	-50	2019.06	27,085	45
1998.01	20,373	-848	2009.01	23,698	-44	2019.07	27,073	-12
1998.02	20,298	-75	2009.02	23,640	-58	2019.08	27,190	117
1998.03	20,196	-102	2009.03	23,580	-60	2019.09	27,177	-13
1998.04	19,970	-226	2009.04	23,583	3	2019.10	27,261	84
1998.05	19,887	-83	2009.05	23,542	-41	2019.11	27,284	23
1998.06	19,815	-72	2009.06	23,761	219	2019.12	27,395	111
1998.07	19,699	-116	2009.07	23,684	-77	2020.01	27,503	108
1998.08	19,714	15	2009.08	23,730	46	2020.02	27,522	19
1998.09	19,807	93	2009.09	23,782	52	2020.03	26,842	-680
1998.10	19,849	42	2009.10	23,760	-22	2020.04	26,504	-338
1998.11	19,729	-120	2009.11	23,770	10			
1998.12	19,920	191	2009.12	23,717	-53			
1999.01	19,653	-267	2010.01	23,692	-25			
1999.02	19,626	-27	2010.02	23,761	69			
1999.03	19,813	187	2010.03	23,857	96			
1999.04	19,928	115	2010.04	23,989	132			
1999.05	20,060	132	2010.05	24,115	126			
1999.06	20,268	208	2010.06	24,079	-36			
첫2개월		-923	첫2개월		-94	첫2개월		-1,018
감소기간	14개월	-1,595	감소기간	6개월	-250	감소기간	?	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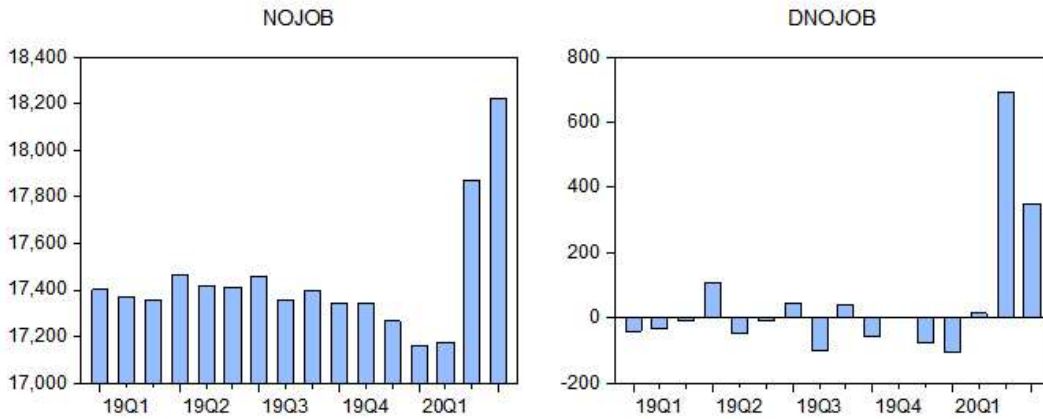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KOSIS

3. 코로나 위기 두 달 실업자는 12만 명 증가했지만 무직자는 105만 명 증가했음.

- 2020년 2월 계절조정 실업자는 93만 명, 3월 실업자는 105만 명, 4월 실업자는 105만 명임. 즉 2월 대비 3-4월 실업자는 12만 명 증가했음.
- 취업자는 102만 명 감소했는데 실업자는 12만 명 증가한 것은,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임. 따라서 실업자 추이보다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무직자 추이를 살펴보는 게 적절함.

- 2020년 2월 무직자는 1,718만 명, 3월 1,787만 명, 4월 1,822만 명임. 즉 2020년 2월 대비 3월 무직자는 69만 명 증가했고, 3월 대비 4월 무직자는 35만 명 증가했음. 코로나 전(前)인 2월 대비 4월 무직자는 105만 명 증가했음(〈그림5〉 참조).

〈그림5〉 연도별 월별 무직자 수와 전월 대비 무직자 증감 추이
(2019.1-2020.4, 계절조정, 단위: 천명)



4.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, 고령자, 임시일용직,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,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

-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여성(-62만 명)이 남성(-40만 명)보다 많음. 연령별로는 60세 이상(-44만 명)이 가장 많고, 다음으로는 청년(15-29세, -21만 명), 50대(-19만 명), 30대(-18만 명), 40대(-16만 명) 순임. 거의 모든 연령층이 타격을 받음.

〈표2〉 성별, 연령별 취업자 수와 증감(2020년 2-4월, 계절조정, 천명)

	취업자수(천명)			증감(전월대비,천명)			코로나위기 2-4월
	2월	3월	4월	2월	3월	4월	
전체	27,522	26,842	26,504	19	-680	-338	-1,018
남성	15,618	15,375	15,217	1	-243	-158	-401
여성	11,904	11,467	11,287	19	-437	-180	-617
15-64세	24,645	24,169	23,895	-109	-476	-274	-750
15-29세	3,888	3,731	3,679	-83	-157	-52	-209
30-39세	5,537	5,429	5,361	-2	-108	-68	-176
40-49세	6,484	6,419	6,326	-14	-65	-93	-158
50-59세	6,470	6,354	6,278	-5	-116	-76	-192
60세이상	5,296	4,918	4,860	214	-378	-58	-436

자료: 통계청 KOSIS

- 종사상 지위별로는 노동자가 81만 명, 비임금근로자가 15만 명 감소했음. 임시직(-45만 명)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, 상용직(-22만 명), 일용직(-14만 명), 고용주(-8만 명), 무급가족 종사자(-5만 명), 자영업자(-2만 명) 순으로 감소했음(〈표3〉 참조).

〈표3〉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와 증감(2020년 2-4월, 계절조정, 천명)

	취업자수(천명)			증감(전월대비,천명)			코로나위기 2-4월
	2월	3월	4월	2월	3월	4월	
전체	27,522	26,842	26,504	19	-680	-338	-1,018
노동자	20,722	20,219	19,914	46	-503	-305	-808
상용	14,631	14,558	14,415	-10	-73	-143	-216
임시	4,723	4,364	4,271	104	-359	-93	-452
일용	1,368	1,297	1,229	-48	-71	-68	-139
비임금근로자	6,744	6,643	6,594	-8	-101	-49	-150
고용주	1,472	1,398	1,391	9	-74	-7	-81
자영업자	4,174	4,164	4,155	-2	-10	-9	-19
무급가족	1,099	1,081	1,048	-14	-18	-33	-51

자료: 통계청 KOSIS

-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(20만 명),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(13만 명), 교육서비스업(10만 명), 농림어업(10만 명),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(8만 명), 건설업(8만 명),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(8만 명) 순으로 취업자가 감소했음(〈표4〉 참조).

〈표4〉 산업별 취업자수와 증감(2020년 2-4월, 계절조정, 천명)

	취업자수(천명)			증감(전월대비,천명)			코로나 위기 2-4월
	2월	3월	4월	2월	3월	4월	
전체	27,522	26,842	26,504	19	-680	-338	-1,018
A 농림어업	1,529	1,533	1,425	-34	4	-108	-104
B 광업	14	16	15	0	2	-1	1
C 제조업	4,454	4,422	4,397	20	-32	-25	-57
D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	77	72	65	3	-5	-7	-12
E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	143	146	149	-1	3	3	6
F 건설업	2,018	2,008	1,940	-11	-10	-68	-78
K 금융보험업	796	785	793	17	-11	8	-3
L 부동산업	548	532	525	-5	-16	-7	-23
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	1,185	1,132	1,144	0	-53	12	-41
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	1,343	1,326	1,309	-10	-17	-17	-34
G 도매소매업	3,560	3,535	3,549	-31	-25	14	-11
H 운수창고업	1,507	1,476	1,450	12	-31	-26	-57
J 정보통신업	849	846	852	0	-3	6	3
I 숙박음식점업	2,285	2,178	2,089	-41	-107	-89	-196
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	516	481	487	-4	-35	6	-29
S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	1,229	1,204	1,147	-1	-25	-57	-82
T 가구내고용활동 등	95	91	89	-6	-4	-2	-6
O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	1,129	1,039	1,053	60	-90	14	-76
P 교육서비스업	1,862	1,780	1,758	-10	-82	-22	-104
Q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	2,385	2,268	2,254	58	-117	-14	-131
U 국제 및 외국기관	17	17	18	2	0	1	1

자료: 통계청 KOSIS

-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(-25만 명)과 서비스직(-25만 명), 전문가(-22만 명)가 많이 감소했음. 취업자가 증가한 직업은 관리자(2만 명)가 유일하고, 생산직도 16만 명 감소했음(〈표5〉 참조).

〈표5〉 직업별 취업자수와 증감(2020년 2-4월, 계절조정, 천명)

	취업자수(천명)			증감(전월대비,천명)			코로나 위기 2-4월
	2월	3월	4월	2월	3월	4월	
전직업	27,522	26,842	26,504	19	-680	-338	-1,018
1 관리자	377	385	401	4	8	16	24
2 전문가	5,632	5,458	5,413	5	-174	-45	-219
3 사무직	4,744	4,689	4,704	3	-55	15	-40
4 서비스직	3,227	3,075	2,982	-22	-152	-93	-245
5 판매직	2,953	2,901	2,923	-23	-52	22	-30
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	1,466	1,473	1,374	-43	7	-99	-92
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	2,371	2,365	2,284	-38	-6	-81	-87
8 장치,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	3,037	2,993	2,964	5	-44	-29	-73
9 단순노무 종사자	3,724	3,533	3,474	116	-191	-59	-2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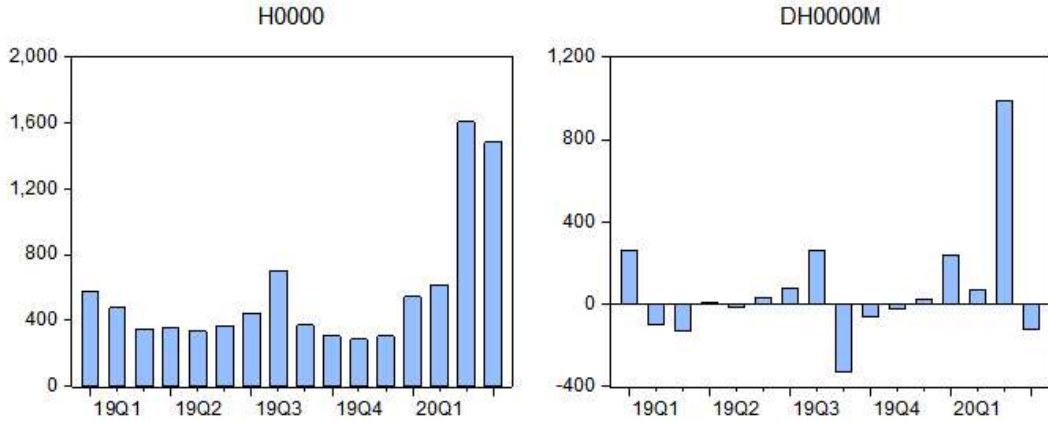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KOSIS

-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, 고령자, 임시일용직,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,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. 이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5. 일시휴직은 2020년 3월 161만 명, 4월 149만 명으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

- 통계청은 주요 고용지표와 성·연령·종사상지위·산업·직업별 취업자만 계절조정 자료를 제공하고, 일시휴직 등은 계절조정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. 따라서 원계열 자료를 사용해서 ‘전월 대비’ 일시휴직 증감을 살펴보되, ‘전년 동월 대비’ 자료도 함께 제시함.
- 취업자 중 일시휴직은 2020년 2월 62만 명에서 3월 161만 명으로 99만 명 증가했음. 4월에는 149만 명으로 한 달 사이 12만 명 감소했음. 4월에 줄어든 12만 명은 대부분 여성으로 일시휴직에서 무직(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)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음(〈그림6〉과 〈표6〉 참조).
- 참고로 2020년 2월까지 일시휴직 최대치는 2014년 8월 88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없음.

〈그림6〉 연도별 월별 일시휴직 수와 전월 대비 일시휴직 증감 추이
(2019.1-2020.4, 원계열, 단위: 천명)



- 2020년 2월 대비 3월에 증가한 일시휴직자는 여성(66만 명)이 남성(33만 명)보다 2배 많음(〈표6〉 참조).

〈표6〉 성별 일시휴직 수와 증감(2020년 2-4월, 원계열, 천명)

	일시휴직 수			증감(전월대비)			코로나위 기	증감(전년동월대비)		
	2월	3월	4월	2월	3월	4월		2월	3월	4월
전체	618	1,607	1,485	72	989	-122	867	142	1,260	1,130
남성	230	559	570	32	329	11	340	33	417	428
여성	388	1,048	915	40	660	-133	527	108	843	7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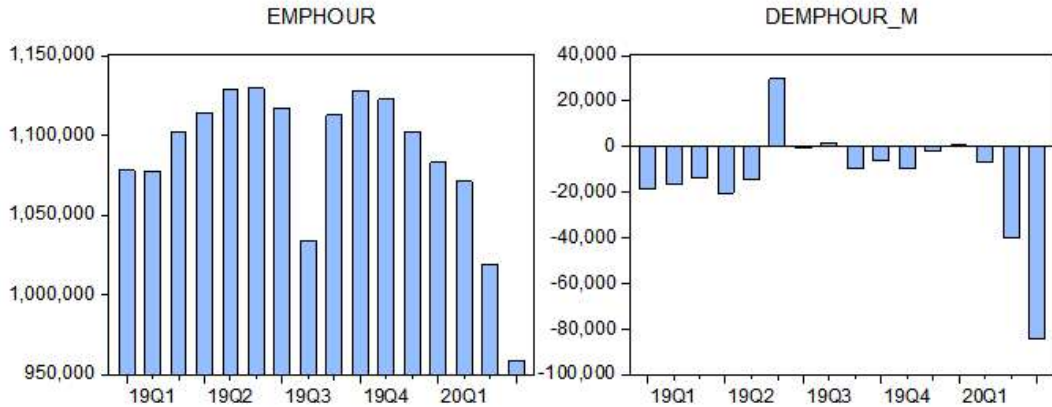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KOSIS

6. 코로나 위기 두 달 동안 전체 취업자의 총노동시간은 10.5% 감소했고, 주40시간 일자리 280만 개가 사라졌음.

-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주당 총노동시간(취업자수×노동시간)은 2020년 2월 10억 7,084만 시간에서 3월 10억 1,913만 시간으로 5,171만 시간(-4.8%) 감소했고, 4월에는 9억 5,889만 시간으로 다시 6,024만 시간(-5.9%) 감소했음(〈그림6〉과 〈표7〉, 〈표8〉 참조).
- 코로나 위기 두 달 동안 감소한 총노동시간은 주당 1억 1,195만 시간(-10.5%)임. 이를 주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28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임.

- 남성은 총노동시간이 주당 5,904만 시간(-9.1%) 감소했고, 이를 주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148만개 일자리가 사라졌음. 여성은 총노동시간이 주당 5,065만 시간(-12.0%) 감소했고, 이를 주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127만개 일자리가 사라졌음.

〈그림7〉 연도별 월별 총노동시간과 전월 대비 총노동시간 증감 추이
(2019.1-2020.4, 원계열, 단위: 주당 천시간)



〈표7〉 성별 취업자수와 주당 노동시간, 총노동시간(2020년 2-4월, 원계열)

	취업자(천명)			주당 노동시간(시간)			총노동시간(천시간)		
	2월	3월	4월	2월	3월	4월	2월	3월	4월
전체	26,838	26,609	26,562	39.9	38.3	36.1	1,070,836	1,019,125	958,888
남성	15,336	15,282	15,237	42.3	41.1	38.7	648,713	628,090	589,672
여성	11,502	11,327	11,325	36.6	34.5	32.7	420,973	390,782	370,328

자료: 통계청 KOSIS

〈표8〉 성별 총노동시간 증가(율)와 주40시간 환산 취업자 수(2020년 2-4월, 원계열)

	총노동시간 증가 (전월대비, 천시간)			총노동시간 증가율 (전월대비, %)			코로나위기 (2-4월)		주40시간 환산 취업자수 (천명)
	2월	3월	4월	2월	3월	4월	증가 (천시간)	증가율 (%)	
전체	-11,884	-51,712	-60,236	-1.1	-4.8	-5.9	-111,948	-10.5	-2,799
남성	-7,154	-20,623	-38,418	-1.1	-3.2	-6.1	-59,041	-9.1	-1,476
여성	-4,786	-30,192	-20,454	-1.1	-7.2	-5.2	-50,646	-12.0	-1,266

자료: 통계청 KOSIS